

진안군, 만성콩팥병 검사지원

올해 396명 대상... 검사자 18.7% 만성콩팥병 3단계 이상 결과

진안군은 고혈압·당뇨병의 여러 합병증 중 하나인 만성 콩팥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일 올해 검사비 지원 목표인 390명보다 66명이 증가한 396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16명보다 1.8배 증가하였고, 검사자의 18.7%가 중등도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된 상태인 만성콩팥병 3단계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검사자의 21.4%, 여성 검사자의 16.6%가 연령별로는 65

세 이상 검사자의 22.9%, 64세 이하 검사자의 7.4%가 3단계 이상이다.

질환별로는 검사자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33.3%, 당뇨병 환자의 15.0%, 고혈압 환자의 16.3%가 3단계 이상이다.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혈액 속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거나 혈압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이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매우 잘 걸린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병,

사구체신염으로 이 세 가지 질병은 성인에서 만성콩팥병을 일으키는 전체 원인의 75%를 차지할 정도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혈압, 당뇨 관리에 힘써 만성 콩팥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콩팥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병의 진행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만성콩팥병 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15% 늘린 500명으로 잡고 있다"며 "읍내 의료기관과 면 보건지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보존관리 앞장

비지정 문화유산 대적골 제철유적·만취정·벽계정 등 6개소 지정

장수군이 지난 10월 26일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 관내 비지정 문화유산 6개소를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11월 17일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개소의 향토문화유산은 ▲대적골 제철유적 ▲만취정 ▲벽계정 ▲영취산봉수 ▲절부원씨정려각 ▲효자육호진정려각이며, 장수군의 대표적 향토문화유산으로 충·효 사상, 배향인물의 역사성, 장수기야를 알리는 중요유적으로 대표성 등이 인정받아 지정됐다.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은 2015년부터 3년간 총 20개소가 지정됐으며, 앞서 국가지정 10건(보물1, 천연기념물 2, 등록문화재 7), 전라북도지정 29건(유형4, 무형1, 기념물6, 문화재자료 18)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군은 이들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장수군이 지난 10월 26일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 비지정 문화유산 6개소를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번에 지정된 벽계정

최용득 군수는 "이번 지정을 통해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역민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 보존관

리를 통해 도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본격화

지난해 11월 '5개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했던 무주군이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안내시설물 1만 5,000여 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치고 본격적 정비에 들어갔다. 안내 시설물 정비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와 완전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이 훼손돼 없어졌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을 찾아 정비하게 된다.

또 교차로와 골목길 등의 도로구간에도 11월 말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와 군비 등 7,000여만 원을 투입해 도로명판 454개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김연호 토지관리 담당은 "도로명 안내시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설치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며 "각종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5개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계획을 마련한 만큼 이에 맞춰 행정자치부지원에도 부합하는 안내시설물 설치율을 차근차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반딧불이 사랑나눔 먹거리장터' 23일 무주군청에서

2017 반딧불이 사랑나눔 먹거리장터가 오는 23일 12시부터 밤 9시까지 무주군청 차 쉼터 1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나눔과 기부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무주지역자활센터와 무주종합복지관, 무주평화요양원, 무주청소년수련관, 무주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하은의 집, 무주반딧불이시니어클럽, 무주9987노인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해 나눔과 문화, 감동, 특별마당으로 진행된다.

관내 청소년들과 동호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문화마당에서는 노래와 악기연주가 진행되며 무주작가회의에서 사회작품전시도 열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예정이다.

아나바다장터로 마련되는 특별마당에서는 주민들이 기증해준 애장품과 재활용이 가능한 옷과 신발, 약세서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나눔마당에서는 천마와 와인, 쌀, 떡, 들기름 등 기부물품 판매와 식사, 분식, 차 등을 만나볼 수 있고 감동마당에는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자원봉사, 티켓구매, 구매티켓 기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관내 청소년들과 동호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문화마당에서는 노래와 악기연주가 진행되며 무주작가회의에서 사회작품전시도 열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예정이다.

아나바다장터로 마련되는 특별마당에서는 주민들이 기증해준 애장품과 재활용이 가능한 옷과 신발, 약세서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19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 개최

장수군이 20일에 한영희 부군수 주재로 2019년 제2차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의 추진점점을 시작으로, 앞서 9월에 실시한 1차 보고회에서 발굴한 28건(3,141억원, 국비 2,437억원)의 추진

상황과 급히 발굴한 22건(566억원, 국비 254억원)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사업으로는 의암공원 관광특화기반 조성, 우량송아지 생산비육 시설 지원, 구축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안천면 망향제... 실향민 향수 달래

진안 안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일 용담댐 수몰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향수를 달래고자 실향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천 망향의 동산에서 망향제를 가졌다.

망향의 동산은 2001년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됐다.

안천면에 거주하는 유은종씨는 "수

몰의 아픔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망향제를 준비해 줘 진심으로 고맙다"며 "매년 이 같은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흥기 안천면장은 "망향의 광장이 수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망향제는 물에 잠겨 있는 옛 조상들의 넋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안천면, 추곡수매 실시

진안 안천면이 20일 2017년산 추곡수매를 실시했다. 이날 수매량은 총 2,077포로 운광과 새누리벼가 수매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선지급금이 사라지고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에 따라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사후 정산한다. 단,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 11월 중 중간 정산 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정흥기 면장은 "농업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식품 체험전' 성료

장수군이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양평시 문호리 나부터 인근에서 '장수군 농식품 체험전'을 성황리에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수군 농식품 체험전'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문호리에 진행되는 '리버마켓'과 함께 열렸으며 김장철을 맞아 장수시과감치 만들기, 장수막걸리 만들기, 장수오미자뽕소 만들기 등 장수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체험프로그램과 토마토즙, 사과즙, 홍삼잔액 등 장수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동시에 진행했다.

'리버마켓'은 생활식품, 공예품, 농산물을 판매하는 플라마켓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장터이다. 특히, 이틀간 20,000명이 넘게 방문, 도시민들에게 장수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호평이 뒤따랐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생육개선사업 실시

진안군은 산림문화자산 보존을 위해 매년 보호수와 노거수를 대상으로 생육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2주의 보호수와 노거수에 수목 외과수술, 토양개량,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의 정비 사업을 펼쳤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부귀면 하거석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1주를 산림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복도에 의해, 신규 보호수로 지정했다.

보호수란 번식이나 품종 보존 및 학술에 참고하기 위해 보호하는 나무로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중에서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뜻한다.

군에는 보호수 3종(느티나무, 버드, 소나무) 59주와, 노거수 5종(느티나무, 서어나무, 참나무, 팽나무, 소나무) 62주가 지정돼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